

여든에 서서 뒤돌아 본 삶

元湖 卞楨承





가훈(家訓)

성실(誠實)한 사람이 되자

1. 성실의 뜻 : 국어사전 설명 -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
2. 성실의 숨은 뜻 :
 - 1) 남에게는 진실해야하고 욕됨이 없어야 한다.
 - 2) 나에게는 근면하고 열성이 있어야 한다.
 - 3) 끈기가 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 4)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여든에 서서 뒤돌아 본 삶

元湖 卞 楨 承

차례(次例)

머리글	5
초계변씨, 참판공파, 세대별 특기사항	6
초계변씨, 참판공파, (병사공)후계도	7
I. 출생과 유년시절	9
1. 출생	
2. 유년기(幼年期)	
3. 해방(解放)과 굶주림 생활	
II. 중학교 진학(中學校 進學)과 생활의 이모저모	11
III. 사범학교(師範學校)진학과 외조부님의 와병 그리고 결혼	12
1. 사범학교 입학시험 합격	
2. 외조부님의 와병(臥病)과 결혼	
3. 외조부님의 별세(別世)	
IV. 사범학교(師範學校)졸업과 교사(教師)의 출발	15
1. 사범학교의 졸업	
2. 교사의 출발	
3. 최초 병아리 교사발령	
V. 군입대(軍入隊)와 제대 복직	17
1. 군입대	
2. 제대복직	
VI. 정교사(正教師)발령과 별교(筏橋)의 생활	18
1. 별교북교의 생활	
2. 별교북교의 위치	

3. 별교에서 가족과의 생활	
4. 별교북교에서의 잊지못할 추억	
VII. 승주군(昇州郡)전입발령	20
1. 창촌국민학교 근무	
2. 현장학습방법 개선으로 학력향상에 노력	
3. 신임 교장선생님과의 의견충돌	
VIII. 철도청(鐵道廳) 전직(轉職)과 다시 복직	22
IX. 교감 자격시험 합격과 자격강습	24
1. 교감 자격시험 합격 : 1985년 1월	
2. 교감 자격강습 수강 : 광주교육대학교 1985년 7월~8월	
3. 교감 자격증 취득 : 1985년 9월 16일	
자격증번호 : (바)제2198호	
발행처 : 문교부장관	
※ 어머니의 별세 : 1986. (음) 2. 14	
4. 교감 승진과 경력	
5. 아버님의 별세 : 1987. (음) 6. 14	
X. 교장(校長) 승진과 학교생활	29
1. 고흥신안국민학교 교장 생활의 이모저모	
2. 순천용림초등학교 근무	
3. 승주초등학교 근무	
XI. 순천향교 입문으로 삶의 가치관 정립	37
XII. 노년(老年)에 들어서서 꿈	40
※덧붙이는 글	
※각종 자격증 및 연수와 훈포장, 사진	

머리글

한문에 人生七十(인생칠십) 古來稀(고래희)라는 글귀가 있다. 중국 두보(杜甫)의 曲江詩(곡강시)에서 나온 글이다.

사람이 70세를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리라.

내 나이 여든에 서서 지나온 길을 뒤돌아 보니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요소요소에 표지석(標識石)이라도 세워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라 이 글을 써 보는데 순간순간의 기억이 가물거려 이젠가 저젠가 망설여지는 대목이 많아 자신이 없어 두려웠지만 그래도 늙은이의 용기로, 나의 후손들이, 이해 또는 관용을 해 줄것으로 자위(自慰)하면서 글을 써 본 것이다.

여기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 글을 읽은 사람은 나의 후손이든, 아닌 타인이든 간에 혹시 잘못된 기록이 있을시는 전술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치부를 했으면 고마울 따름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나 또한 예외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라도 포장을 해서 낯 두꺼움을 가려 보고 싶은 심정에서 횡설 수설 늘어 놓고 있음을 너그러이 이해하기 바라고 끝으로 금쪽같은 나의 후손들의 영원함과 우리 씨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글을 맺는다.

2014(甲午). 11. 元湖 畚

초계변씨(草溪卞氏) 참판공파 세대별 특기사항

세(世)	명(名)	특 기 사 항 (特記事項)
1세	시조(始祖)	• 고려성종(成宗) 을유(서기 985년) 등과
~	정실(庭實)	• 문하시중(門下侍中), 팔계군(八溪君), 시(諡), 문열공(文烈公) • 묘 : 경남 합천군 울곡면 갑산리 • 시제 : 매년 10월 1일(음)
10세	효경(孝敬)	• 참판공파, 파조(派祖) • 세종, 기해년(己亥年)등과
~	(참판공)	• 문종 신미년 병조참판 단종(병자, 6월 5일) 졸
15세	희손(喜孫)	• 의금부도사 이조참의 (묘) 안양, 배산 (배) 정부인 공산이씨
16세	국간(國幹)	• 증중, 1562년생 • 무과등과(武科登科) 7도, 병, 수사 • 전라우수사(묘) 장흥, 안양, 배산 (배) 영월 엄씨 • 시제 : 10월 14일
17세	홍달(弘達)	• 병사공평안병영입소 • 시호, 흑면장군(黑面將軍) • 임진왜란시 전사
18세	덕일(德駟)	• 무과 선조, 무오(戊午) 1618년 요동에 가 김응하 장군막하에서 전사 묘 : 초혼장 (배) 광산 김씨
19세	소(昭)	• 통덕랑(通德郎) (배) 전주이씨 (묘) 장흥 배산
20세	이현(爾賢)	• 통훈대부(通訓大夫), 군자감정(軍資監正), (배)숙인, 광산 이씨
21세	인익(麟翼)	• 1751년(신미생), 통정대부, 공조참의, 1793년(계축 졸) (배)숙부인, 삭령 최씨(묘) 순천시 주암면 감성리 고란
22세	양석(陽錫)	• 가선대부(한성부 좌윤) (배) 정부인 전주 이씨 (묘) 주암면 주암리
23세	방윤(邦允)	• 1775년생, 승정대부(崇政大夫) 1794년 6월 12일 졸 (배) 정부인(貞夫人) 인동 장씨
24세	규승(圭升)	• 순조, 갑자생, 임술 4월 5일 졸 (배) 평산 신씨
25세	효순(孝淳)	• 순조, 신유생 병자 10월 15일 졸 (배) 파평 윤씨
26세	종익(鍾益)	• 철종, 임술생 병인 1월 12일 졸 (배) 진주 하씨 9월 7일 졸
27세	금수(조)	• 1906년(병오) 3월 3일생, 1987년 6월 14일 졸 (배) 영월 엄씨 : 1915년 11월 9일생, 1986년 2월 14일 졸
28세	정승(楨承)	• 1935년(乙亥) 11월 11일생, 초등학교 교장 : 7년

초계변씨 참판공파(병사공) 후계도(보성, 순천)

시조(정실:庭實) - 2세 (광:光) - 10세(효경:孝敬) - 13세 (온:溫) —————
(참판공:파조)

— 14세(효충:孝忠) - 15세(희손:喜孫) - 16세(국간:國幹) - 17세(홍달:弘達) —

— 18세(덕일:德駟) - 19세(소:昭) - 20세(이현:爾賢) - 21세(인익:麟翼) —

— 22세(양석:陽錫) - 23세(방운:邦允) - 24세(규승:圭升) —

— 25세(효순:孝淳) - 26세(종익:鍾益) - 27세(금수:今洙) —

- 28세(정승:楨承) - 29세 —————>
 - 경섭(景燮) - 교진(敎辰), 유진 (배미자)
 - 창섭(昌燮) - 교육(敎煜), 수미 (윤미순)
 - 홍섭(興燮) - 교웅(敎雄), 고은 (신경순)
 - (딸)미선, (사위) 조민호 - 조운, 조수진
- 28세(정근:楨根) - 29세 —————>
 - 웅섭(雄燮) - 재성(在成), 진희 (이미자)
 - 인섭(寅燮)
- 28세(정호:楨鎬) - 29세 —————>
 - 영섭(永燮)
 - 민섭(旻燮) - 지후, 지민 (임수진)
 - (딸)혜경, (사위) 김동욱 - 두열, 우열, 단아
- 28세(정모:楨模) - 29세 —————>
 - 준섭(準燮) - 재민, 서현 (김정실)
 - 형섭(亨燮) - 재운, 재인 (황수진)
 - (딸)은경, (사위) 김완수 - 솔이, 남우
- 28세(정현:楨鉉) - 29세 - 승환(勝煥) (김영자)
- (딸) (정해:楨海) (사위) 장세용 - 장영천, 미옥, 성옥

I. 출생과 유년시절

1. 출생

1935년(乙亥生) 음력 11월 11일 축시(丑時) 초계변씨(草溪卞氏) 참판공(參判公) 효자 경자(孝자 敬자)할아버지의 18세 손으로 아버지 금자 조자(今자祚자)와 어머니 영월 엄씨(寧越嚴氏)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인 나와 남동생 4명 여동생 1명, 모두 5남 1녀의 형제이다.

2. 유년기(幼年期)

일제(日帝)의 쇠사슬이 극에 달해 있을 즈음 왜 이다지도 어려운 시기(時期)에 세상(世上)빛을 보았을까?

배고픔도, 서러움도 모른채, 오로지 4代(대) 종손(宗孫)으로서만이, 귀염받고, 사랑받고, 외조부모님(外祖父母)의 사랑을 독차지 한채 유년기를 보냈었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延命)하여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한 백성들의 원한(怨恨)이 하늘에 사무쳤는지 1945년(乙酉年) 열살의 나이에 해방을 맞았다.

3. 해방(解放)과 굶주림 생활

해방의 기쁨은 굶주림을 달래 주지 못하고 하루 세끼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百姓)들은 동분서주(東奔西走)했지만, 배고픔이 극에 달할 때는 청빈락도(淸貧樂道)의 독백(獨白)을 씹는 양반(兩班)네도, 거지의 새까만 깡통안의 하얀 쌀밥이 그리워서 못견딜 지경이고

배고픈 슬픔도, 차거운 인정도, 날과 달은 아랑곳 없이 나라안은 독립(獨立)을

했답시고, 정부수립(政府樹立)을 했답시고, 야단법석이고, 한쪽은 우익(右翼)이고 다른 한쪽은 좌익(左翼)이라고 헐뜯고 모략하는데 여순(麗順) 반란사건(反亂事件)이 터졌단다.

II. 중학교 진학(中學校 進學)과 생활의 이모저모

이와중(渦中)에서 허덕이며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주암(住岩)에서 순천(順天)까지 80리(약 32Km)거리의 중학교(中學校)를 다닐 수 있는 가정형편(家庭形便)이 아니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부모님 몰래 야간중학교(夜間中學校) 입학시험(入學試驗)을 보았고 합격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닐 수 있는 일반주간학교(晝間學校)는 엄두도 못내고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선배 선현(先輩先賢)들의 흉내를 낸답시고, 어설픈 꾀변(詭辯)으로 부모님의 동정을 받아 등록금(登錄金)을 어렵사리 마련해서 꿈에도 그리던 중학생(中學生)이 되었건만 한달만에 6.25사변이 터질줄이야...

9.28 수복이 되어 학교는 복학(復學)을 했지만, 6.25전쟁의 와중(渦中)이라 정상적인 학업활동(學業活動)이 어려웠고, 더구나 야간학교(夜間學校)는 주간학교(晝間學校)과정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주경야독의 푸른꿈은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외척(外戚)으로 형님벌되시는 최병상 선생님(당시 농림중학교 교사)의 도움으로 순천농림중학교 1학년 농과에 전학(轉學)을 하게 되었다. 당시 농림중학교는 농과(農科), 임과(林科), 축산과(畜産科)의 3개과가 있었는데 1950년 1학년 모집부터 원예과(園藝科)가 신설(新設)되어, 이후 4개과가 되었다.

그후 1951년 2학년이 되면서 정부의 학제 개편으로 순천북중학교(順天北中學校)와 순천농림고등학교(順天農林高等學校)로 분리되고, 나는 북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고난을 극복하신 부모(父母)님을 생각하며, 한겨울밤이면 방안의 물이 퐁퐁얼어 붙은 차거운 방에서나마 반딧불 빛에 책을 읽는 심정(心情)으로 열심히 학업(學業)에 정진하여 천신만고(天辛萬苦) 끝에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게 되었다.

Ⅲ. 사범학교(師範學校) 진학과 외조부(外祖父)님의 와병(臥病) 그리고 결혼(結婚)

1. 사범학교 입학시험 합격

당시의 우리 가정형편으로는 더 이상 고등학교 과정을 갈수없는 상황이라서 인문계(人文係) 고등학교 진학은 엄두조차 못내었고, 학비(學費)가 저렴(低廉)하고 관비(官費)까지 나오는 사범학교 진학을 생각했다.

입학경쟁율(入學競爭率)이 매우 높다고 소문이 나있기때문에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사범학교가 아닌 다른 일반 고등학교는 가정형편이 허락치 않아 엄두도 내기가 어려웠다.

하늘이 도우셨는지 조상님이 도우셨는지, 남학생 100명 모집에 합격이 되어, 부모님의 어려우신 도움으로 졸업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2. 외조부(外祖父)님의 와병(臥病)과 결혼

• 외조부님 이야기

외조부(外祖父)님께서는 영월 엄씨 이시고, 외조모(外祖母)님께서는 회진 임씨(會津林氏)이시다.

두분 사이에는 따님만 두분을 두셨는데 큰따님이 나의 어머니이시고 둘째 따님은 쌍암면(현재 승주읍) 봉곡리 권씨(권○○ 나의 이모부) 댁으로 혼인하여 6남 2녀를 두셨는데 자녀들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 활동을 잘하고 있다. 특히 장남은 순천사범학교(順天師範學校) 나의 후배로서, 교육자의 길을 훌륭하게 마치고 서예(書藝)의 도(道)를 잘 닦아 국전(國展) 초대작가(招待作家)의 위치에

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외조부모님께서는 두 따님만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 외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셨고, 따라서 내가 비록 외손자(外孫子)지만 친손자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귀여워하셨다. 그러던중 내가 네살(4세) 되던해에 외할머니께서 별세를 하시게 되었다. 외조부님께서는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며 더구나 왜정 말기(倭政末期)힘난한 생활고를 겪으시고 이제 겨우 생활에 안정이 될만하니 노병(老病)으로 자리에 눕게 되시니 참으로 슬프지 않을 수 없었다.

• 생각지도 못한 결혼설

와병중(臥病中)에 계신 외조부(外祖父)님께서 나의 부모님께 소원(所願)을 하셨는데 “내가 죽기전에 외손자 하나라도 결혼시킨 것을 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는 것이다. 외조부님의 이 말씀에 부라부라 서두른 것이 바로 나의 혼사(婚事)문제였다.

•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식의 결혼(생각하기도 싫은) 1955년 1월 겨울방학(사범학교 2학년 말)이었다. 집(주암면 갈마리)에 와 보니 외조부님께서 병환중에 식음(食飲)을 전폐하고 계셨다. 겨우 문병(問病)온 사람을 알아보실 정도였었다.

이와중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를 결혼을 시키기를 나의 부모님께 간청을 하셨단다. “내가 죽기 전에 外손자 하나라도 결혼시킨 것을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이다.

• 결혼 날짜를 받았는데 그날부터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때는 모두 훨훨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이라도 가고픈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일제(日帝)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살아오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럴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일짜는 다가오고 말았다.

• **결혼일은 돌아왔고 결혼식은 이루어졌다.** 말할 것도 없이 가마타고 신부 집에 갔고, 격식에 맞춰 식을 올렸다. 그날의 신부가 지금의 아내이고, 신부집은 당시 쌍암면(지금의 승주읍) 봉덕리 봉곡부락이다.

결혼 당시 나이, 신부 : 20세(乙亥:을해생), 내나이(20세)생일은 신부 : 1월 11일생, 나는 11월 11일생 신부가 10달 빠른셈이다. 이런것을 두고 『천생연분』이라고 한다던가?!

3. 외조부(外祖父)님의 별세(別世)

내가 결혼식을 마치고 딱 1주일만에 별세를 하셨다. 아무튼 외조부님의 한가지의 소원은 풀어드림 셈이 되어서, 그래도 그런 점에서는 외조부님에 대한 죄스러움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다.

다만, 76세의 춘추로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신 외조부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비록 외손자이지만 그토록 보고 싶어하셨던, 새로 맞은 외손부(外孫婦)의 손한번 잡아 보시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신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움을 느낀다.

여기서 인생(人生)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60년전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인간(人間)의 본능만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IV. 사범학교(師範學校) 졸업과 교사(教師)의 출발

1. 사범학교의 졸업

사범학교 3년간의 수학기간(修學期間)은 부잣집의 6년보다 더 길었으며, 빛나는 졸업장은 부모님의 피땀이 얼룩진 값진 보배였다.

- 1956년 3월 31일 졸업
- 국민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자격증번호 : (바) 13347호

내 생애 최초의 자격증이며 보람스러운 표식(標識)이었다.

2. 교사의 출발(出發)

사범학교 3년간의 교육은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資質)을 양성하는 교육내용이었다. 교육과정(教育課程)과 교과내용(教科內容)이 모두 교사라는 틀속에 몰아 넣는(?) 교육이었다. 그래서 학교 이름(校名)도 사범학교(師範學校)이다.

3년간의 사범학교 교육을 마치고나니 나 스스로 교사라는 자부심(自負心)을 갖게 되었고 교단에 서고 보니 타(他)고등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육학(教育學)과 교육심리학(教育心理學), 교육철학(教育哲學)등의 공부는 교사로서의 긍지를 갖게되는 동기 부침이 되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3. 최초 병아리 교사 발령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생애 최초의 「교사」라는 직위로 발령(發令)을 받은 학

교는 우리 집에서 약 4Km거리의 주암면 소재지인 주암국민학교였다.

병아리교사로서의 꿈을 키웠고 교사로서의 자질(資質)을 길러준 선배 교사들의 사랑과 도움이 컸으며 특히 교장선생님(校長先生任)께서는 내가 창촌국민학교 졸업당시 박남호 교장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4. 초임학교(初任學校) 3년간을 마치고 모교(母校)인 창촌교 전입

1959년 봄 모교인 창촌국민학교로 전출발령을 받았다. 9년전 내가 졸업을 했던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되었구나, 6.25사변으로, 졸업 당시의 건물은 폭격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석조(石造)건물로 육중하게 새로 지은 건물이 정서적(情緒的)이지를 못한 것 같아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V. 군입대(軍入隊)와 제대복직(除隊復職)

1. 군입대

창춘국민학교에 전입하여 6학년을 담임한지 6개월만에 군(軍) 입영장(入營狀)을 받고 입대(入隊)를 하게 되었다.당시에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발령을 받은 사람은 군입대(軍入隊)를 면제해 주었다. 그런데 그 무렵 병역법(兵役法)이 개정(改正) 되면서 운나쁘게 나와 같은해에 사범학교를 졸업한 동기생들 부터 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나도 1959년 9월 1일자로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전반기(前半期) 2개월, 후반기(後半期) 1개월 합계 3개월을 마치고, 최전방(最前方), 당시 7사단에 배치되어 12개월간의 병영생활을 마치고 입영한지 만 1년만에 제대(除隊)를 하였다.

※당시 병역법으로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로 입대한 사람은 「교보」라고 하여 1년간,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으로 입대한 사람은 「학보」라고 하여 1년 6개월(18개월간) 군복무(軍服務)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2. 제대복직(除隊復職)

군복무 1년간을 마치고 1960년 9월 1일자로 제대를 했는데 곧바로 복직이 되지 않았다. 이유는 새로 군 입대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그 자리에 제대(除隊)한 교사들이 복직할 수 있는데 그때에 입대하는 교사가 없을 때는 제대교사가 복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제대한지 2개월이 지난 11월 19일자로 복직 발령이 되었는데 그것도 정교사(正敎師)가 아니고, 강사(講師)로 발령 되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무안군 자은면(지금의 신안군 자은면) 두봉국민학교였다.

그곳에서 1개월만에 정교사(正敎師) 승진발령되면서 보성군으로 발령되었다.

VI. 정교사(正敎師) 발령과 벌교(筏橋)의 생활

1. 벌교 북교(筏橋北校)의 생활

1) 1960년 12월 31일자 정교사(正敎師) 승진발령되면서 도교육청에서 보성군 교육청으로 발령이 되었고 보성군 교육청에서 벌교북국민학교(筏橋北國民學校)로 발령되었다.

2) 벌교북국민학교는 왜정시대에 일본인 자제들이 다녔던 학교이고 벌교남국민학교는 한국인 자제들 만이 다녔던 학교인데 1945년 해방이 되어 일본인이 물러가게 되므로 학구가 조정되면서 남교는 벌교읍의 중심부(中心部)학구이고, 북교는 벌교읍의 변두리인 회정, 전동 등의 학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남교와 북교의 위치가 도로 하나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어 겨울철 눈이 많이 오면 학생들이 눈을 뭉쳐 서로 눈싸움을 벌여 도로(道路)쪽으로 위치한 양쪽학교 건물의 교실 유리창이 상당히 많이 부서지곤 하였다.

3) 1년후 어렵사리 부모님의 승낙으로 아내와 함께 학교 근처에 셋방을 얻어 살림을 차렸고 그때 나의 큰아들이 5세쯤 되었는데 벌교에서 같이 생활을 하였다. 그 아들이 지금 57세를 넘어 회갑을 바라보는 나이오니 세월의 무상함을 탓해 무엇하랴!

4) 벌교북교에서는 만 3년간을 근무하면서 교사로서의 소명의식(召命意識)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지금은 그때의 제자(弟子)들이 모두 훌륭한栋梁材(東樑材)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5) 그후 몇년이 지나 학구 개편으로 벌교북교는 벌교여중(女中)으로 바뀌었다 고하니 세월의 변천과 더불어 사회역사(社會歷史)도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벌교북교 생활에서 잊지 못한 추억의 하나)

1961년 4월 신학기초(그당시는 1학기가 4월 1일부터 시작이었다) 직원 사무분장에서 나는 체육계를 담당하였다. 그해 10월에 교내 가을 대운동을 개최했

는데, 그날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학부형 부락대항 릴레이」 이가 있었다.

그 경기 진행 담당교사가 체육계인 내가 맡았는데 각 부락 대표로 나온 선수들 중에 그 부락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선수가 들어있다고 하여 서로 옥신 각신 다투고 있어 경기가 좀처럼 진행될 수 없었다.

이렇게 다투는 사이 경기장이 어수선하고 본부석까지 동요되어 경기 진행자인 내가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용기를 내어 고함을 질렀다.

“여러분, 이 운동회가 누구를 위한 운동회인가? 오늘의 운동회는 우리의 귀한 아들딸들의 운동회가 아닌가?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부끄럽지 않은가? 만일 옥신각신 문제를 일으킨 분은 이자리에서 당장 퇴장을 시키고 나머지 선수들로 경기를 진행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라고 일장 포효를 울렸더니 잠시 조용해 졌으며 그틈을 이용해서 경기를 진행하여 무난히 마쳤다.

이후로 그 당시의 젊은이들과 매우 친근하게 되어 학부모들과의 인간관계 또한 돈독해져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VII. 승주군(昇州郡) 전입발령

1. 창촌국민학교 근무

1963년 봄 보성군에서 승주군으로 전입되었고 승주군 교육청에서는 창촌국민학교(나의 모교)에 발령하여 막내동생과 나의 큰애가 재학하고 있어 모교(母校)를 위해서, 가족(家族)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오로지 교육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교사의 본분을 성실히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훗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하였다.

2. 현장학습방법 개선으로 학력향상에 노력하였다.

교육학(教育學), 교육심리학(教育心理學) 등의 연수와 연구활동으로 교육의 질(教育의 質) 향상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현장(現場)학습 방법개선에도 열심히하여 학력향상(學力向上)에 효과를 거양(擧揚)한 바도 있었다.

3. 신임 교장선생님과의 의견 충돌

1960년대의 학교 경영에서는 차드가 많이 유행을 했었다.

1967년 창촌국민학교 경영차드는 (김○○)교장선생님께서 켄트지 전지(全紙) 40매 분량의 차드를 만들어 놓고 4월, 교장 정기(定期)인사에서 서면○○국민학교로 영전을 하셨다. 후임(後任)교장으로 오신분(B교장)이 학교 경영 차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차드 초안을 만들어 오라는 지시였다. 이날이 토요일이었다.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40여매 분량의 초안을 만들어서 월요일 학교를 갔는데 직원 조희가 끝나자 나에게 와서 차드 초안에 대해서 문의 한마디 없이

교장선생님 자신이 만든 초안을 제시하면서 차드를 만들라는 일방적인 지시였다.

이를 못마땅히 생각한 나는 교장선생님의 차드안을 만들지 않고 2일동안이나 나의 책상위에 그대로 놔두었다. 이를 확인한 교장선생님은 이 차드안을 다른 교사에게 만들도록 지시했고, 이 일이 있는 후 교장선생님은 사사건건 나에게 대해서 비판했고, 심지어 나의 교실환경정리 상황에 대해서까지 시시비비를 따지며, 은근히 나에게 대한 압박을 가해오는데, 학교 경영자로서는 상식이하의 행위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교권을 사정없이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분개한 나는 교장선생님께 항의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심한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감정으로는 더 이상 같이 근무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더욱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계신 교감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께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것을 못마땅히 생각하시고 교감선생님께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두문자로 욕설을 하자 그 다음날 교감선생님께서 결근을 해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버리자 교무실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게 되고 교장선생님 또한 사택에서 나오시지를 않아 교장, 교감선생님이 안 계시는 학교가 되어 버린셈이 되자 그 이유가 어쨌던간에 매우 죄스러운 생각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되었을 터인데 하면서도 한편 형용할 수 없는 허무감 같은 감정이 밀어 오르는 것을 억제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도피하는 피난처를 생각하고 있던차 때마침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직 5급을류 행정직 시험이 있어 응시한 결과 합격이 되어 전직을 하게 되었고 이때 내마음에 가장 죄송하게 생각된 교감선생님을 잊지 못하며 지금도 그때일을 생각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기 그지 없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VIII. 철도청(鐵道廳) 전직(轉職)과 다시 복직(復職)

1. 1967년 12월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철도청 부산공작창 근무발령을 받았다.
2. 공작창장(工作廠長)으로부터 관리과 서무계 보임을 받고, 12년간의 교직생활(敎職生活)에서 새로운 생활에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매우 서툴렀지만 노력(努力)의 결과 짧은 시간내에 그자리에서 존재(存在)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자부심(自負心)과 긍지(矜持)를 갖고 근무를 할 수 있었다.
3. 부산(釜山)에서의 하숙생활은 불편의 연속이었고 가정(家庭)과의 왕래도 어려웠다. 당시에는 경전선(慶全線)의 진주-순천간의 철도가 연결되지 않았고 또 버스도 순천에서 부산까지의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주암에서 부산을 가려면 주암-순천-여수(배를타고)-부산을 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왕래가 매우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많았다.
4. 부산생활 1년 6개월 후에 순천철도국으로 전입되었으나 이곳 역시 주암(가정)에서는 통근하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통근할 수 있는 차가 없었음) 순천에서 하숙 생활을 해야할 처지였다.

이때에 평소 나를 아끼는 교직 선배님 몇 분들로부터 교직으로 복직할 것을 권유하시고 심지어 복직하게 되면 임지까지도 교육위원회에 부탁을 드릴 수 있다면서 복직을 적극 권유해 주신 선배님이 계셨다. 주위 선배님들의 말씀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복직서류를 내었고, 면접시험까지 보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0여일 후에 승주군으로 발령이 되었으며 승주군 교육청에서 주암국민학교로 발령을 내 주셔서 약 3년간의 철도청 생활을 접고 다시 교직생활로 복직하게 되니 감개무량(感慨無量)할 따름이었다.

5. 복직(復職)을 한 주암국민학교 생활

김(金)교장선생님께서 복직을 한 본인을 승주군 교육장님께 주암국민학교로 발령

해 줄 것을 요청한 이유중의 하나가 당시 주암교가 승주군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였었는데 연구학교 연구주임교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나는 교장선생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근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 실과연구지정학교 연구발표 준비에 전직원 혼신의 노력

그때 당시 연구지정학교의 연구발표 방법은 켄트지 전지(全紙)를 이용하여 차-드를 만들어 설명하는 방법이 주류(主流)였으나 주암교에서는 시청각(視聽覺)기계의 하나인 환등기를 사용한 근대식(近代式)기계에 의한 발표로 효과를 거양하여 좋은 평가로 찬사를 받은바 있었다.

6. 창촌국민학교로 전근(轉勤)

주암국민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고 모교인 창촌국민학교로 전입(轉入)하여 교사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주임교사(主任教師) 제도가 시작되면서 연구주임교사와 교무주임교사를 두루 역임하여 경력을 쌓았다.

7. 운룡(雲龍)국민학교 전근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곡성군 석곡면에서 승주군 주암면으로 편입되면서 석곡면 운룡국민학교가 주암면 운룡국민학교로 바뀌고 교사인사도 승주군 교육청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더구나 이곳이 벽지가 되어 있어 벽지학교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희망하게 되었다.

8. 여천군 두라국민학교 전근

승진을 위한 벽지 점수 확보를 위해 여천군 전출을 희망하였고 두라국민학교(斗羅國民學校 : 도서벽지-갑지)로 발령을 받았다.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때(창촌초등학교) 나의 은사님이셨다. 반갑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1년후에 교장선생님은 고흥군으로 영전을 하시고 후임으로 이○○교장선생님이 승진하여 오셨다.

IX. 교감자격시험 합격과 자격강습

1. 교감 자격시험 합격

여천두라국민학교 근무 만 2년째인 1985년 1월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이 시험은 1차적으로 자격연수 대상인원의 1.5배수를 서류전형으로 선발하고 2차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중에서 필답고사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첫째 시간에 일반교양과목으로 객관식 4지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60분간이고, 둘째 시간은 전공과목(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육행정, 교육철학 등)으로 논문식 3문제 중 2문제 선정, 60분간을 치루었다.

2. 교감자격 강습, 수강

1985년 7월~8월, 광주교육대학교

3. 교감자격증 취득

1985년 9월 16일 자격증번호 : (바)제2198호 문교부장관

※어머님의 별세

1986년 3월(음력 2월 14일)에 지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세상을 뜨셨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라시던 아들의 교감승진발령』도 못 보신채 한많은 세상을 어떻게 가셨을까? 호강한번 못받으시고 고생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으신 우리 어머니,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배고픈 사람이 집에 오시면 당신이 잡수시던 밥을 당신은 잡수시지 않고 먹여 보내시는 정(情) 많으신 우리어머니,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심가이시다.

※왜정 말기에서 해방 직후까지의 우리나라 국민생활이 말할 수 없이 빈곤하고 비참한 생활이었다.

4. 교감 승진과 경력

• 교감 승진발령

- 1987년 6월 15일 : 강진군 영산국민학교 발령
- 1988년 3월 1일 ~ 1989년 2월 28일 : 강진군 마량국민학교
- 1989년 3월 1일 ~ 1991년 11월 2일 : 승주군 이읍국민학교
- 1991년 11월 25일 ~ 1994년 2월 28일 : 승주군 외서국민학교
- 1994년 3월 1일 ~ 1994년 8월 31일 : 승주군 창촌국민학교

5. 아버님의 별세(하늘이 무너지고 땅도 꺼지고)

1987년 6월 15일 멀리 떨어진 강진군으로 교감 승진 발령을 받았다. 아버님께서 노환(老患)으로 계시면서도 나의 승진(昇進)을 몹시 기뻐하셨다. 발령을 받은지 1개월만에 아버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다. 원거리 근무지에서 비보를 받고 집에 도착하니 임종(臨終)도 못본 불효자식(不孝子息)이 되고 말았으며, 참으로 슬픈일이었다. 오호! 통제라, 땅이 꺼지고, 이제는 하늘도 무너졌도다 『법없이도 산다』는 이름난 우리 아버님,

아버님의 출생 10일도 안되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 떡애기를 안고 다니시며 수개월 동안 동냥 젖을 얻어먹여 기르시다가 어느 기간을 지나서야 맘죽(쌀을 갈아서 갇난 어린이가, 먹을 수 있게 끓인 죽)으로 길으셨는데 그 복(福)마저 짧아서 10살이 겨우 넘었을 무렵 할아버지까지 별세를 하셨다고 하니 이런 운명이 어디 있겠는가? 3대 독자이시며 천애고아가 되신 우리 아버님, 천만 다행으로 가까이 사시는 고모님(아버지의 누나) 한분이 계셔서 그 분 도움으로 어린 시절을 어렵게 어렵게 살으시다가 할아버지 대(代)에 일켜 놓으신 토지(산과 밭 약 1정보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차차 가세(家勢)를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

6. 아끼고 사랑한 둘째 동생의 죽음

아버님이 별세하신지 두달후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내 가슴속에 항상 걸려 있는 둘째 동생이 갑작스런 발병(發病)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 별세의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이런일이 생기니 하늘도 원망스러웠다.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란 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다. 이러한 불행들이 나에게 닥쳐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7. 국민학교 교감 근무 생활의 이모저모

○ 교감 승진의 첫 발령지 : 강진군 영산국민학교

○ 교직생활 30여년 만에 교사에서 교감 승진이다.

○ 내 생애 『승진발령』이란 처음 듣는 단어이다.

1) 영산국민학교의 생활 : 부임한지 1년만에 분교로 격하

2) 마량국민학교의 생활

○강진군 마량은 항구로서 1987년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강진군 대구면 마량이로서 리(里) 소재지 학교였었다.

○이후 면(面)으로 승격되어 면(面)소재지 학교가 되었다.

○마량항은 가을철 제주도 감귤이 전남 지방으로 오는 것은 모두 마량항으로 들어왔으며 감귤 운반배가 입항하게 되면 마량항은 성시를 이루었다.

○학부모들의 가정생활도 다른 일반 시골보다는 비교적 풍족한 편이고 생활 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교육열도 도시에 비해 뒤지지 않은 수준이다.

8. 순천시 이음국민학교 근무

○ 강진에서 2년간 근무하고 순천시 이음국민학교로 전입했다.

○ 당시 교장선생님(오○○교장)의 장기간 병원 입원으로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을 1년반 동안하면서 순천시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지정을 받았다.

○ 그 때의 연구 영역은 『국제이해교육』으로 일반 교과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생소한 영역이 되어 연구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 당시 연구주임교사인 윤○○주임교사의 탁월한 연구 추진능력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양한 결과 교육청 연구 담당 장학사와 교육장님으로 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던 일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 윤○○연구 주임교사는 이후 꾸준한 연구활동으로 교감 승진시험을 거쳐 장학사까지 임명받아 도내에서 훌륭한 장학사 활동으로 명성을 드높였다.

9. 순천시 외서국민학교 근무

○1991년 11월 25일 ~ 1994년 2월 28일 : 2년 3개월 근무

외서국민학교는 이읍국민학교와 같이 벽지학교이면서 또한 급식학교이다. 그러기 때문에 근무희망교사가 많아서 교사 진영이 매우 좋은 학교로 이름이 나있었다. 따라서 교감, 교장의 학교 경영에 도움이 많아 이 학교에 근무하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미감아 학급』이 있었다. 『미감아』란 말은 나병환자의 자녀들 가운데 나병균이 감염되지 않은 어린이를 말하며 이러한 어린이들이 학급에 편성된 학급을 『미감아 학급』이라고 하였다. 그 때 당시 외서면 관내에 나병환자촌이 있었고 그 마을에서 생활하는 환자 가족중에 태어난 자녀들이 학급에 편성되어 있는 학급이 있었는데 이 학급을 담임한 교사는 미감아 학급 담임 수당이 있었고 아울러서 승진 점수에 가산되는 미감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미감아 학급담임 희망교사가 매우 많아서 교감 교장이 어려움을 겪은일도 있었다.

따라서 승주군 관내에서 근무희망교사가 가장 많은 학교중의 하나이기도 했고, 관내 교감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학교이기도 했으며 선망의 대상학

교였다고 할 수 있었다.

10.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교장(校長)자격연수 대상자 확정

- 외서국민학교 재직중 교장 자격 연수(資格研修)
- 연수 기간 : 1993. 6. 28~1993. 8. 6 (6주간 182시간)
- 연수 장소 : 한국 교원대학교(충북, 청주)
- 교원자격증 : 국민학교 교장 : (바) 제1145호, 교육부장관
- 발행일 : 1993년 8월 13일

X. 교장(校長) 승진과 학교 생활

교직생활(敎職生活)의 정상(頂上)은 학교 교장이다. 교장(校長)의 첫째 관문(關門)은 교장 자격증(校長資格證) 획득이고 다음 관문은 임지(任地) 발령이다. 평생(平生)의 소원인 학교장 발령을 받았다. 당시 교장 승진 초임발령(初任發令)은 거의 도서벽지 학교였다.

그런데 나는 운 좋게도 육지에서도 비교적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고흥군 점암면 신안(新安)국민학교이었다. 교장 강습 동기생(同期生)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나의 가족들에게도 기쁨과 행운을 이야기 하면서도 이런 때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 고흥신안국민학교 교장 생활의 이모저모

1) 교장 발령 통지를 받고 1차적으로 고흥교육청으로 갔다. 당시 고흥 교육장님이 순천사범학교 선배인 박○○교육장님이셨다.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터이고 또한 존경한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마음이었다.

2) 교육청을 다녀서 오후에 발령받은 학교인 신안국민학교에 부임을 했다. 신안국민학교는 과역면 소재지에서 고흥읍방향 4Km저점에 위치한 학교로, 교통이 편리하고 점암면 소재지학교보다 순천에서는 매우 교통이 편리한 학교였다.

3) 직원들과 부임인사를 하고 학교 상황을 듣던 중 교감선생님도 인사이동으로 전출되시고 신임 교감선생님께서 보성군 관내학교에서 승진하여 오신다는 소식이었다.

4) 신임 교감선생님께서 광주광역시 주소지인데 그날 오후에 귀가했다가 다음날 생활도구등을 챙겨오기 위해 자기 자가용차(自家用車)로 광주를 행해 가

던중 불의의 교통 사고로 불귀(不歸)의 몸이 되고 말았으니 이러한 운명(運命)도 또 있을것인가!

5) 후임(後任) 교감선생님은 고흥군이 고향인 분이 오셨는데 건강상태가 약간 좋지않아 근무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었다.

6) 학교앞 등교길 횡단보도에 교통신호등 설치로 학부모들의 칭송이 많았다.

- 학교 정문(正門)앞이 바로 순천시(順天市)에서 고흥→녹동까지 다니는 직행 버스를 비롯해서 각종차량의 왕래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었는데 고흥경찰서 교통과장(당시, 박희찬 氏)의 배려로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서 많은 등 하교(登下校) 어린이들이 안전(安全)한 도로 횡단(橫斷)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여기서 당시 고흥경찰서 교통과장이신 박희찬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7) 노여교사(老女教師)의 명예퇴직

원로하신 여교사(女教師)한 분이 계셨다. 60세가 갓 넘으신 교사로서 어머니 교사가 아닌 할머니 교사였다. 당시 교원 정년은 만 65세이기 때문에 아직도 정년까지는 4~5년 정도 남아 있는 셈이다.

1996년 2월에 노여교사(老女教師)는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다. 그 때 학교장으로 퇴임식을 해드려야 했고 퇴임식에는 송별사(送別辭)를 해드려야 했다.

그 때 당시의 송별사 한구절을 소개해 본다

“~선생님께서 교육에 쏟으신 가룩하신 정신과 사랑, 그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는 보배요 훌륭한 업적입니다. ~(중략)

이순(耳順)이 넘으신 연치(年齒)에도 항상 겸손하시고 양보하시며 남에게 베푸시는 정성이 지고지순(至高至純)하시며 ~(중략)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제자(弟子)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인간(人間)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베푸는 도리(道理)를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오로지 올바른 교육자(教育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조금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아주 바른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긴 세월 옆눈질 한번 팔지 않고 올곧게만 살으셨습니다.~(중략)

선생님의 그 삶이 행복(幸福)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정성(精誠)이 숭고(崇高)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심성(心性)이 천사(天使)였습니다.

~(중략)

인간(人間)생활의 모범이요 교사의 표본(標本)이 되신 선생님! ~(중략)

지금도 선생님의 지고지순(地高至純)하시고 천사(天使) 같으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쯤은 백발이 성성하고 이마의 주름살이 깊어져서 옛날의 모습을 찾아 보기 힘이 들겠지요, 부디 여생(餘生)에 행운만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994년 9월부터 1996년 8월까지 고흥 신안국민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의 무궁한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8) 학구내(學區內) 추곡 수매의 일화

○1987년 6월 15일자 신안국민학교 교장 발령을 받은 그해 12월에 학교앞 농협창고(農協倉庫)에서 추곡 수매를 하고 있었다.

○추곡매상인(賣上人)대부분은 본교 학구내 학부모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추곡매상 등급을 가능한한 잘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곳에 오신 지역사회 유지분들이나 기관장들과도 친분을 가질 겸 해서 음료수 2박스를 사들고 찾아가서 내자신을 소개하고 추곡 수매 검사관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수매 검사관 하는 말씀이 『검사생활 10년이 넘었는데 학교장이 직접 수매장을 방문해서 학부모들의 추곡수매를 잘 부탁한다는 일은 생전 처음이라면서 호탕하게 웃으며 농담반, 진담반 “교장선생님의 성의에 잘 보답하겠습니다” 라고하며 그곳에 모이신 학부모님들에게 “우리신안학교에 1등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치십시다” 라고 하여, 박수와 함께 웃음바다가 되었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 이후로 점암면장을 비롯하여 면내 여러 기관장, 그리고 면내 유지들과도 쉽게 접하게 되었다.

9) 학교 경내(境內)에 매실을 재배, 수확하여 학부모 가정에 분배

학교 경내(境內)약 20주 가량의 매실나무가 있었다. 수확기에 모두 따서 학부모의 가정에 조금씩 분배해 드렸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매실을 받아 보기는 처음이라며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협조심도 좋아지면서 교육열도 높아져 교사들의 사기가 향상되고 어린이들의 학업 성취도 역시 좋아졌다.

10) 학구내 노인들의 『게이트볼』 구장 설치 제공

1994년 10월 학구내(學區內) 노인회장께서 당시 처음으로 시행된 게이트볼 경기장을 학교 운동장 한쪽 모서리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와 쾌히 승락하고 설치를 해서 노인들의 유일한 운동 경기장이 마련 되었었다.

11) 그후 이곳을 떠나온지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곳을 가보지 못하였으니 강산이 변해도 두번이나 변한 세월이 흘러간 지금 그때 그 시절의 생각만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것 뿐이다.

2. 순천 용림초등학교 근무

1) 1996년 9월 1일자 순천 용림초등학교 전입 발령

2) 용림초등학교는 순천시 황전면 용림리 소재로

3) 구례화엄사를 비롯한 구례방면 관광지를 찾아가는 관문이기도 한 구례구역이 있는 곳이다.

4) 학부모님들의 생활 수준도 도시에 못지 않으며 교육열 또한 높은 편이어서 학교 경영에 학부모 도움이 많았다.

5) 학생수 격감으로 1998년 3월 1일자로 분교로 격하되면서 황전북국민학교 용림분교장이 되었다.

6) 용림초등학교 생활의 이모저모

○용림초등학교에는 『비룡분교장』이 있었다.

○비룡분교장에는 복식학급 3학급이 있었는데 분교장 주임교사를 포함하여 3명의 여교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여교사들만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장이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구역으로는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로 곡성군과의 접경이고 섬진강을 경계로 구례군과 인접해 있다.

○생활권은 구례읍으로서 생활 필수품은 구례시장으로부터 구입하고 농산물 판매도 구례시장이 주무대이다.

3. 승주초등학교(昇州初等學校) 근무

○1998년 3월 1일자 승주초등학교 전입 발령을 받았다.

○승주초등학교에는 두개의 분교장이 있었다.

1) 죽학분교장 - 승주남국민학교 전신

2) 구강분교장 - 승주북국민학교 전신

※승주서국민학교는 본교로 통합되었다.

[두개의 분교장 관리]

1) 죽학분교장 : 3학급 편성 운영

가) 복식학급 편성 :	1학년 + 4학년	} 3학급 편성
	2학년 + 5학년	
	3학년 + 6학년	

나) 급식학교 운영 : 영양사, 조리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모들의 보조요원이 배치되어 협조 근무를 하였다.

2) 구강분교장 : 죽학분교장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병설유치원 관리]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공립초등학교에 설치토록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하나였다. 따라서 각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우리 승주초등학교에서도 본교는 물론 죽학분교에도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병설유치원의 가을 대운동회]

당시의 초등학교에서는 가을철이면 거의 매년 교내 대운동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분교의 병설유치원은 분교학생들과 같이 본교에와서 운동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어(분교에서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운동회의 목적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교와 분교 합동 체육대회를 많이 하였다.

[학교 다목적(多目的)교실 신축]

1998년 당시 교원의 정년은 63세였었다. 김대중 대통령재임시 교원 정년 65세에서 63세로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의 정년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퇴임전에 기념이 될만한 일은 없을까. 생각한 끝에 학교 강당이나, 아니면 다목적(多目的)교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두가지 중 하나를 신축해줄 것을 순천교육장님께 건의 하였다. (당시 조상원 교육장님) 그 결과 강당보다는 다목적교실을 신축(新築)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부지 물색을 하였으나 마땅치 않아 어렵사리 화장실 일부를 정리하고 터를 다듬어, 지금의 본관 맨 서편쪽에 지은 교실이 이때 신축된 다목적교실이다.

[어린이 등하교 시의 교통지도]

1998년 3월 1일자 인사 이동에 의거 승주초등학교에 부임했다. 학교 교문과 자동차 도로가 연접(連接)되어 있어 학생 등하교(登下校)길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알았으며 몇년전에 등교길에 어린이 한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장이 아침 일찍(업무 시작전) 출근하여 직접 등교 지도에 참여할 것을 결심했다.

매일 08시 이전에 출근하여 6학년 선도생 남자 1명, 여자 1명을 선정하여 이들과 같이 등교지도를 하였다.

※어린이 등교지도 현장에서의 보람된 일 한가지

학교 교문통에서 6학년 교통지도 어린이들과 등교지도를 하는 중에 나의 고향 후배(의료보험조합 김○○과장)가 주암면 접치리에서 매일 순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 길에 본교 앞을 지나면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2명에게 도서상품권(당시 5천원 정도×2)을 주었는데 한달에 1번꼴로 매월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 이 어린이 들이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후까지 남자 어린이 1명은 서신을 주고 받고 하여 친교를 계속하였으며 대학 진학후까지도 계속 친교를 맺고 있다고 들었다.

여기서 지면을 통하여 고향후배 김과장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학교운영에서 어려웠던 일] : 중학교 진학 문제

1990년대 승주초등학교 졸업생은 승주중학교에 진학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물론 지금도 변함 없겠지만) 그런대 일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순천시내 중학교로 보내기 위해 승주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초에 순천 시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희망한 분들이 있어서, 이를 억제하는데 학교장으로서는 매우 어려움을 느낀적이 많았다.

[정년퇴임(停年退任)]

퇴임일자 : 1999년 8월 31일

철도청 근무 2년을 제하면 약 42년간의 교직생활이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세월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감개 무량하다. 40년전에 사범학교(師範學校)를 졸업하고 병아리 교사로 시작하여 이순(耳順)이 넘어 정년퇴임까지 하고서도 세상의 모진 풍파는 겪어보지를 못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한 심신, 그래도 용케 여든까지 왔으니, 조상님의 덕(德)인가, 하늘의 덕인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누

구의 덕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맙게만 생각된다.

이제 퇴임한지 15년이 지났다. 이제는 세파에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저승길이 두려울 따름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자, 두려움을 초월하자, 지구가 생기고 인류가 태어난 이후 모든 사람들은 말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 누가 비껴갈 것인가!

정년(停年)이란 말은 어쩐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 어떠한 상태가 진행되다가 멈추는 것이 정지(停止)이다. 움직인 상태의 진행은 삶이요, 움직인 상태의 멈춤은 죽음과 같다. 공직생활(公職生活)의 정년은 활동의 정지이다. 교직활동(敎職活動)이 정지된지 15년이 지났다. 내 나이 여든살이다. 여든살이 되어서 뒤돌아 보아도 걸어온 그 길이 올바르게 잘 걸어 왔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그 대답이 명확하질 못한 것 같다. 아쉽기만 하다.

청빈락도(淸貧樂道)의 생각으로 살아가자.

『청빈락도』란 말은 “가난함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걸맞게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될 것 같다.

큰 돈 모아 놓은 것 없고 부자(富者)말 못 들으니 청빈락도는 억지로라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단어(單語)이다.

권력(權力)도 없고, 돈벌이도 안되는 교직(敎職)생활을 40여년(약 반평생) 간이나 했었는데 부자라는 부(富)자(者)는 나와 거리가 먼 단어이다.

다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다. 『40여년간의 교직생활』에서 길러낸 제자(弟子)들이라고 자부한다.

『청빈락도』 요즈음도 가끔 아끼던 제자들의 방문이나 안부전화등은 부자 못지 않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부자(富者)이다.

※경제학(經濟學)에서 『공급은 수요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다. 『행복(幸福)은 마음의 즐거움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5년간 수업)졸업장을 받은 것도 내 인생에서 즐거운일 중의 하나였다.

XI. 순천향교(順天鄕校) 입문(入門)으로 삶의 가치관(價値觀) 정립(定立)

1. 1999년 8월 31일자로 교직(敎職)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약 42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할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처음 1개월 정도는 긴장이 풀리면서 마치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며,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텅을 잃은 사람처럼 스스로 느껴지는 것을. 어느날 발견하게 되었다.

그순간 아- 무엇이랴도 해 봐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농사를 지어볼까?... 이것은 아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쉬어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식 농법(農法)을 익히고 현대식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이에 대한 이론적 공부를 습득해야하고 다음에는 기계농을 해야 하는데, 더욱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론적인 공부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지만 기계를 움직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기술이 필요하다.

농촌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운기 하나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1년에 농촌에서 경운기 사고로 병원을 찾는 농부가 부지기수이다. 경운기 기계 작동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농촌의 일이 그만큼 경운기라는 기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어느 기회에 경운기를 가진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경운기 작동방법 및 운전방법을 습득하고 실습을 해 보는데 작동(作動)기술만으로 안되는 것이 경운기라는 농기계임을 알 수 있었다.

작동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함을 알았다.

힘이 없으면 경운기 자체에 압도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더욱이 나와 같이 나이가 60세가 넘는 초보자는 매우 힘이 많이 들어간 농기계라는 것을 깨닫고 농사지를 생각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삶의 가치관 확립(價值觀 確立)

나이가 들어서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딘가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이런 무렵 이웃동네 친구(초등학교 1년 선배) 한분이 “향교에나 입문(入門)해 볼 생각이 없느냐?” 고 물어왔다.

향교(鄕校)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은 대개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경험을 못해 봐서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망설이면서도 호기심이 들어 꽤히 승락을 했었다.

향교에 입문해서 비로소 노년(老年)의 삶을 여기에서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價值觀)도 유교(儒敎)의 바탕에서 찾아야겠다는 확고한 의지(意志)를 굳히게 되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루 세끼 밥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다. 그러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한마디로 『삶의 가치관』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거지의 삶이나 가난한 사람의 삶이나 부자의 삶이나 유식한 사람의 삶이나 무식한 사람의 삶이나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의 삶이 가치있는 삶이고 어떠한 사람의 삶이 가치없는 삶이냐? 하는 것은 각기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갖는 종교가 각기 다른 이유도 바로 개인의 가치관이 많이 작용하리라고 생각한다.

교직생활(敎職生活)을 할 때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교직생활을 할 때는 교사라는 위치를 중요시한 가치의식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에 와서의 가치의식은 지금의 삶의 의식(意識)이 중요시 된 것이 더욱 크게 작

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지금은 종합적이고 복합적(複合的)인 가치 의식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된 것이다.

3.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첫째는 될 수 있는 한 『올곧고, 진실(眞實)되게 산다』는 것이다.

둘째는 될수 있는 한 『남에게 욕되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는 말로는 쉬운일 같지만 실제 우리생활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다. 『올곧게 산다는 것』 『진실되게 산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욕되지 않게 산다』는 것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모두가 한가지도 쉬운일이 아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야겠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실제 현실생활에서는 실천을 못하고 실수를 할 때가 가끔 있으니 그때마다 깊은 반성을 하면서도 때때로 어느 순간 이를 망각하고 실수를 범하고 이런 것이 바로 신이 아닌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다만 좌우명(座右銘)처럼 생각하고 늘 실천에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다.

『여든에 서서 - 뒤돌아본 삶』에서 가장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본것이 바로 위에 적은 나의 가치관, 즉 좌우명(座右銘)에 대한 실천상황과 그 실행 의지에 대한 반성이다.

매일 일기(日記)를 쓰는 심정으로 실행 → 반성을 하면서 뒤돌아 본 삶은 가치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가치로운 것』을 먼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서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다. -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의 생각으로

※ 주암노인대학장 역임

1. 2004년 9월 6일 : 순천시 노인대학 총장으로 위촉을 받음 - 순천시장
2. 2013년 3월 4일 : 주암댐 실버대학장으로 위촉을 받음 - 주암댐실버대학총장

XII. 노년(老年)에 들어서서 꿈

1. 노탐(老貪)이란 말을 흔히 쓴다.

늙은이의 욕심이란 뜻이라. 젊어서 없던 욕심이 나이 들어서 욕심을 부린다는 말이다. 젊어서는 이것 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열심히 살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 저것 욕심이 생기는 일들이 있음을 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나 역시 여든에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흔히들 말하는 이것이 바로 노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래, 노탐을 버리자.

그대신 여든까지 걸어온 과정을 실타래 풀 듯이 한번 풀어서 정리(整理)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다.

실타래 풀듯이 차례차례 풀어 보지만 매듭이 맺혀있어 잘풀리지 않는 곳이 군데군데 있었다. 그러한 곳은 가급적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 범위에서 풀어보도록 노력하였으나 기억력의 한계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어쩔 수가 없음을 자인(自認)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꾸밈없이 적어 보는 것이다.

2. 노년(老年)에 들어서 할 수 있는 일

노년에 들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다. 다만 돈벌이가 되는일은 내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저 책상에 앉아서 글로 써 보는 일이나 가능한 일이다.

글로 쓰는 일도 차원 높은 저서 같은 일은 어려운 일이고 토막글 같은 지난일의 회고담 등 산문(散文)으로 쓰는 것은 그래도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이 글의 동기임을 밝힌다.

3. 지나온 일을 사실대로 적는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글을 시작한 것도 순수한 동기에서 있었던 일 겪었던 일 느꼈던 일 등을 적나라하게 적어서 훗날 나의 후손(後孫)들이 조상의 삶을 거울삼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어설픈 생각을 해 보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막상 사실대로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4. 보람있는 삶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보람있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각양각색일 것 같다.

각자 삶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앞절의 『삶의 가치관』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한다.

5. 무용지용(無用之用)의 노년(老年)이 되고 싶다.

장자(莊子)의 인간세(人間世) 편에 『무용지용(無用之用)』이란 말이 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작은 재주가 있다.”¹⁾는 의미이다. “산에있는 나무는 사람들에게 쓰이기 때문에 잘리어 제 몸에 화를 마치고 등불은 밝기 때문에 불타는 몸이 된다. 계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베어지고 옷나무는 그 칠을 쓸수 있기 때문에 잘리고 찍힌다.

사람들은 모두 유용(有用)의 용(用)만을 알고 무용(無用)의 용(用)을 알려 들지 않으니 한심할 일이다.”²⁾라고 했다.

따라서 무용의 용(無用의 用)을 생각해 보는 노년(老年)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1) 고사성어, 이우연 편역, p.148

2) 고사성어, 이우연 편역, p.148

6. 노마지지(老馬之智)의 지혜로 노년을 살아가리라.

한비자(韓非子)의 설림편(說林篇)에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의 노마지지(老馬之智)의 한자말이 있다. 의역을 하면 『세상 살이는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지혜가 난관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어원(語源)을 밝히면 『관중(管中)과 습붕(濕朋)이 제나라 환공을 따라가서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기 위해 봄(春)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겨울이 다 되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길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관중이 말하기를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즉시 늙은 말을 풀어 놓고 그 뒤를 따라가니 과연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길을 찾아서 가는 도중에 숲속을 지나게 되었는데 물이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습붕이 말했다. “개미는 겨울에 산의 양지쪽에 살고, 여름에는 산의 음지쪽에 사는데 개미 둥이 한 치만 되면 그 곳에는 물이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그의 말대로 양지에서 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은 관중이나 습붕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자신이 모르는 일에는 하찮은 말(馬)이나, 개미까지도 스승으로 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7.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용기는 늙은이에는 무모(無謀)한 짓이다.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가는데 벌레 한마리가 발을들어 장공이 탄 수레 바퀴를 치려했다. 장공은 말몰이꾼에게 물었다. “저건 어떤 벌레인가?” “사마귀(螳螂)입니다 저놈은 원래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날 줄을 모르며, 분수도 몰라 제 힘은 생각지 않고 상대를 업신여긴 놈입니다.” 어려서 부터 궁 안에서 자란 장공으로서는 처음보는 희한한 일이었다. 더구나 그 벌레는 처음 보았다. 머리는 삼각형이고, 눈알은 튀어나왔으며 촉각이 기다란 것이 마치 두개의 채찍과 같았다.

앞가슴은 가늘었으며 복부는 비대하고 앞발은 길었다. 두개의 발은 마치 톱니

달린 낫과 같았다.

장공은 “그놈이 만일 사람이면 반드시 천하의 용사가 되겠구나” 라고 말하고 수레를 돌려 사마귀를 비켜 갔다고 한다.

8. 계포(季布)와 같은 신의 있는 삶을 살자.

사기(史記)에 『계포일락(季布一諾)이란 말이 있다. 계포(季布)는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다룰때 항우의 대장으로 용맹을 떨쳤던 인물로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다.

항우가 마지막 싸움에서 패하자 유방은 천금의 현상금을 걸어 계포를 수배하고 그를 숨겨주는 자가 있으면 그의 삼족을 멸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계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상금에 눈이 어두워 그를 체포하려는 자가 없었으며 오히려 유방에게 그를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것을 권하였다.

그래서 계포는 유방의 조정에서 벼슬을 하면서 의로운 일에 힘썼으므로 모든 이의 신임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9. 노년의 지혜와 경험으로 아름답게 여생을 보내자.

노년(老年)은 그냥 노년(老年)이 된 것이 아니다. 지혜와 쌓인 경험이 노인이 가진 보배이다.

노년(老年)이 가진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얻은 경륜(經綸)으로 주위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노년이 되기 위해서 남은 인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가치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 다짐해 본다.

“아름다운 노년(老年)” “존경(尊敬)받을 수 있는 노년(老年)” 이 되는 것이 『여든에 서서 뒤돌아본 나의 삶』이 참된 삶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련다.

10. 나의 건강관리 요령

- 1) 매일 새벽 4시 30분경에 시작하여 약 50분간 맨손 운동하기
 - 약 20여 종목(본인이 내 체질에 맞게 개발한 종목)을 매일 새벽에 실내에서 실시한다.
 - 맨끝에는 숨쉬기(깊은 호흡)운동으로 약 100회 정도를 한다.
 - 마지막으로 숨쉬기가 끝나면 등에 약간 땀이나 있기 때문에 땀을 닦기 겸 건포마찰을 한다.
- 2)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주 2회) 순천향교, 게이트볼구장에서 1시간~2시간 정도 운동하기
- 3) 매일 오후 4시경에서 시작하여 약 1시간 정도 걷기운동하기

11. 끝맺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지 않으니 무슨 욕심이 더 있으리오마는 그래도 남은 인생(人生)이 얼마이진 간에, 더욱 알뜰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은 비록 나만의 욕심이 아니고 모든 늙은이의 욕심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름다운 늙은이의 욕심이 무엇일까? 존경받는 늙은이는 어떤 늙은이일까? 한번쯤 생각해 봄직하다.

-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삶 ○ 노익장(老益壯)의 삶
-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삶 ○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삶?

글쎄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삶도 살고 싶고, 노익장(老益壯)의 삶도 살고 싶지만,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삶보다 노익장(老益壯)의 삶이 더욱 어려울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방법적인 가치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이는 글

이 책의 원고가 거의 끝날 무렵(5월 하순) 나의 자녀들이 우리 내외(內外)를 위해 “팔순(八旬) 기념행사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회갑연(回甲宴)은 물론 칠순(七旬)잔치까지도 아버지께서 거절하시어, 부모님을 위해 한번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먼 훗날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 같으니 팔순만이라도 한번 치뤄드리는 것이 자손들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간청하여 도리없이 허락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족(나의 형제, 자매가족) 만이 참석하여 식당에 가서 점심한끼 먹는 범위에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난 5월 24일, 순천시 모 식당에서 조촐하게 치루었는데 내 생애(生涯)에서 또 한번의 가장 즐거운 날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60여명의 대가족(大家族)이 한자리에 모여,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 보는, 4촌간, 5촌, 6촌까지의 일가족이 모였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이를 허락치 안했다면 훗날 큰 후회가 되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면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고마웠다고 말해두고 싶다. 끝.

각종 자격증 및 연수와 훈포장

1. 자격증

- 1) 국민학교 교감 : 1985년 9월 16일 발부 - 문교부장관
- 2) 국민학교 교장 : 1993년 8월 13일 발부 - 교육부장관

2.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 1) 국민학교 교감 자격연수 : 1985년 5월 23일 ~ 1985년 7월 20일(260시간)
- 2) 국민학교 교장 자격연수 : 1993년 6월 28일 ~ 1993년 8월 6일(6주간 : 182시간)
- 3) 중앙교육행정 연수 : 1971년 12월 3일(30시간)
- 4) 실천예절 지도강사 (仁, 인 과정) : 2005년 4월 25일~4월 29일(5일간 40시간)
- 5) 실천예절 지도강사 (義, 의 과정) : 2005년 5월 9일~5월 13일(5일간 40시간)
- 6) 실천예절 지도강사 (禮, 예 과정) : 2005년 5월 30일~6월 3일(5일간 40시간)

3. 임명장과 선임장 및 위촉장

- 1) 국민학교 교장에 임함, 신안국민학교 근무를 명함, 1994년 9월 1일, 대통령 김영삼
- 2) 순천시 노인대학총장 : 2004년 9월 6일 : 순천시장 조충훈
- 3) 성균관유도회 전남도 본부 운영위원 : 2006년 3월 1일 : 회장 이재승
- 4) 2006년도 청소년 인성교육강사 : 2006년 6월 20일 : 성균관장 최근덕
- 5) 2007년도 청소년 인성교육강사 : 2007년 6월 3일 : 성균관장 최근덕
- 6) 성균관 유도회 순천지부회장 : 2009년 4월 25일 : 성균관유도회장 강대봉
- 7) 성균관유도회 전남도 본부부회장 2013년 2월 28일 : 성균관유도회장 박남호
- 8) 주암댐실버대학장 : 2013년 3월 4일 : 실버대학총장 김관중
- 9) 노인지도자대학 졸업 : 2005년 12월 6일 : 전남노인지도자대학장 박중신

4. 훈장 및 포장, 표창

- 1) 국민훈장 동백장(제31389호) : 1999년 8월 31일, 대통령 김대중
- 2) 국민정신교육학습자료전시회 1등급 : 1980년 8월 22일, 전남도교육감 이대순
- 3) 각급학교 교원 연구논문발표 1등급 : 1984년 11월 15일, 전남도교육감 김낙운
- 4) 전남현장교육연구대회 1등급 : 1989년 9월 21일, 전남도교육회장 배중무
- 5) 국민교육에 헌신 봉사 : 1991년 12월 5일, 교육부장관 윤형섭
- 6) 연공상 : 1993년 5월 15일, 한국교원단체연합회장 이영덕
- 7) 유림단합 지부운영 활성화 : 2011년 3월 3일, 성균관유도회장 박남호

각종 자격증 및 연수와 훈포장

바 제 2198 호

교원자격증

성명 변정승

주민등록번호 371214~1634816

자격 국민학교교장

교육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증서를 수여함

1985년 9월 16일

문교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0항에 따라 위임 [권한 위임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위원회 교육감

1. 검정종별 무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교육법 제79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3. 수여조건 해당없음

바 제 1145호

교원자격증

성명 변정승

주민등록번호 371214~1634816

자격 국민학교교장

교육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1993년 8월 13일

교육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아]

전라남도교육감

1. 검정종별: 무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교육법 제79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3. 수여조건 해당없음

광주교대-초-교감-85-145

교육연수이수증

성명 한글 변정승
한자 (卞貞承)

주민등록번호 371214~1634816



생년월일 1937년 12월 14일생

연수종별 행정(교감)자격연수

연수기간 1985년 5월 23일 ~ 1985년 7월 20일

이수시간 260시간

성적 95(A)

효력별 초등교원 행정(교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

1985년 7월 20일

광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연수원장 문학박사 최성호



한국교원대 초·중·고교장 자격
제 931-2148 호

교육연수이수증

성명 한글 변정승
한자 (卞貞承)

주민등록번호 371214-1634816



생년월일 1937년 12월 14일생

연수종별 자격연수

연수기간 1993년 6월 28일
1993년 8월 6일 (6주간)

이수시간 182시간

효력별 국민학교장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

1993년 8월 6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



각종 자격증 및 연수와 훈포장

제 20809호

이 수 증

주민등록번호 181106-101671

성명 변경증
1937년 12월 14일생

위의 사람은 본 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함

1971년 10월 3일

중앙교육행정연수원장

부기: 1. 이 이수증은 발급자처 귀속에 효력이 있음.
2. 이수시간: 30시간.

입 명 장

국민학교 교감
변 정 증

국민학교장에 입함
(임용기간: 1994. 9. 1. ~ 1998. 8. 31.)

신안 국민 학교
근무를 명함

1994년 9월 1일

대통령 김 영삼

위 촉 장

순천시 주암면 갈마리 317번지
변 정 증
1937. 12. 14

귀하를 순천시 노인대학
총장으로 위촉합니다.

2004년 9월 6일

순천시장 조 증

任 命 狀

全南 順天 市 郡 佐 岩 邑 面 湯 馬 洞 里
姓名 卞 貞 承

貴下를 成均館儒道會 全羅南道本部
運營委員으로 任命함

檀紀 四三三九年 三月 一日
成均館儒道會 全羅南道本部
會長 李 載 承

全儒第 134 號

각종 자격증 및 연수와 훈포장

委 嘱 狀

青少年 人性教育 講師
姓名: 卞貞承

貴下는 成均館이 主管하고 文化觀光부가 後援하는 2006年度 青少年 人性教育 現場教室 講師 教育 課程을 履修하였기 青少年 人性教育 講師로 委嘱합니다.

2006年 6月 27日

成均館長 崔 根 

委 嘱 狀

青少年 人性教育 講師
姓名: 卞貞承

貴下는 成均館이 主管하고 文化觀光부가 後援하는 2007年度 青少年 人性教育 現場教室 講師 教育 課程을 履修하였기 青少年 人性教育 講師로 委嘱합니다.

2007年 6月 26日

成均館長 崔 根 

成儒總 第 09-143 號

選 任 狀

成均館儒道會 全羅南道 順天支部
會 長 卞 貞 承

貴下를 憲章 第4條 1項 및 組織運營 規程 第20條 規程에 依據 위와 같이 選任합니다.

自 孔紀2560年(西紀2009年) 04月 25日
至 孔紀2562年(西紀2011年) 04月 24日

成均館儒道會
會 長 姜 大 奉 

成儒總 第2013-30號

選 任 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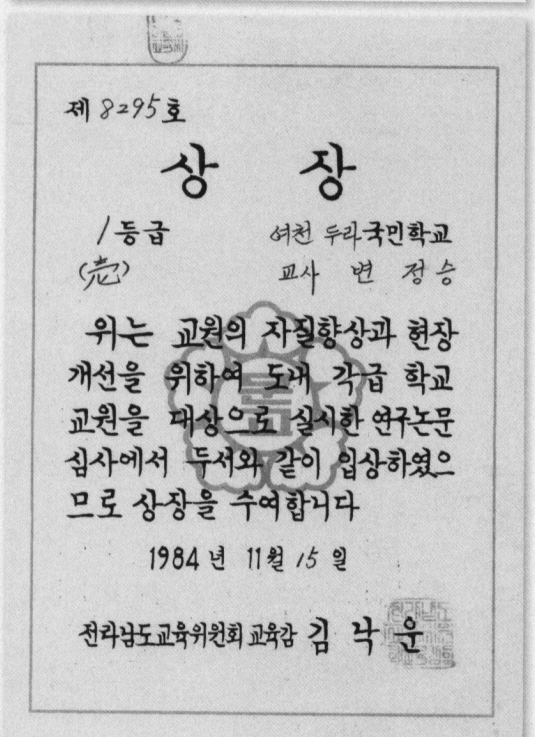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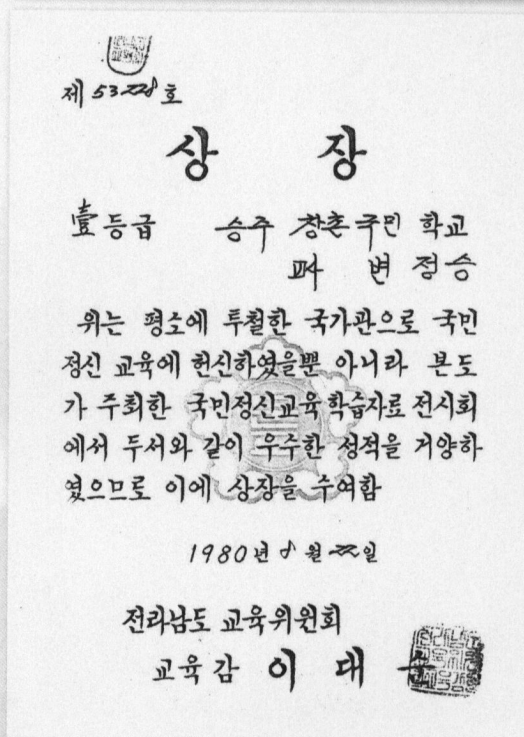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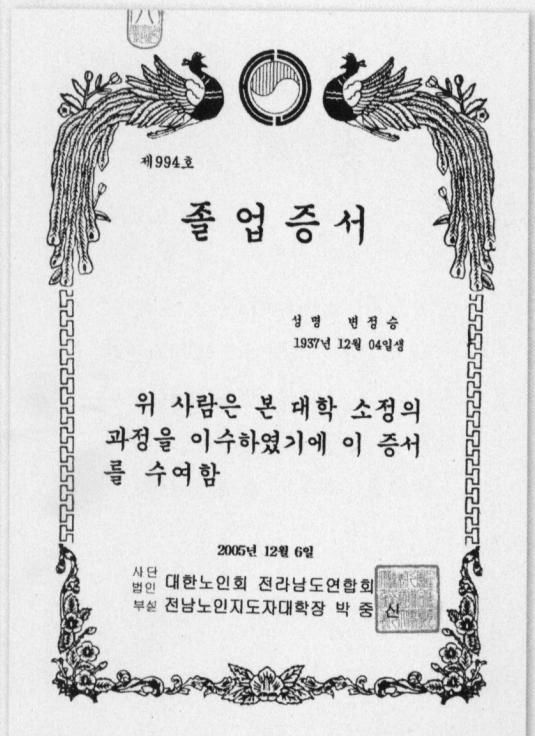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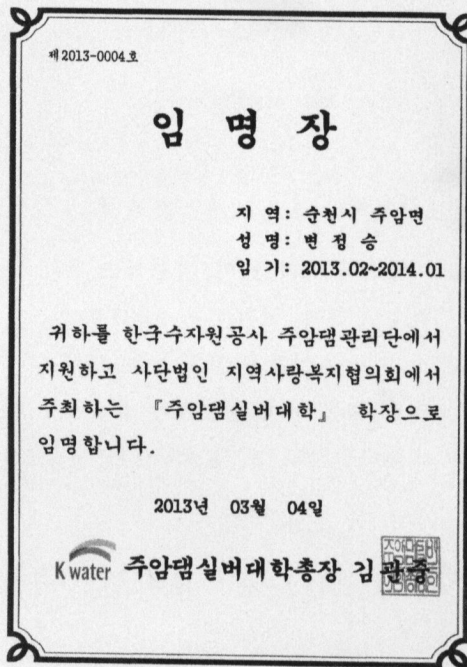
全羅南道本部
副會長 卞 貞 承

貴下를 憲章 第4條 第1項과 組織運營 規程 第17條 第2項 및 第20條에 依據 위와 같이 選任합니다.

自 孔紀2564年(西紀2013年) 03月 01日
至 孔紀2567年(西紀2016年) 02月 28日

成均館儒道會總本部
會 長 朴 楠 

각종 자격증 및 연수와 훈포장



각종 자격증 및 연수와 훈포장

제 89-1430호

상 장

(등급 승주 이음국민학교
교감 변정승

커하는 본회가 주최하는 제28회
전남 현장 교육 연구 대회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 하였습니다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1989년 9월 21일

전라남도교육회 회장 배 증



제 5906 호

표 창 장

이음국민 학교
교감 변 정 승

위 사람은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기리어 표창합니다

1991년 12월 5일

교육부장관 윤 형



제 53695 호

표 창 장

연공상 전남 승주 외서 국민 학교
교 감 변 정 승

선생님은 평생을 한결같이 투철한
교육 신념과 헌신적인 실천으로 사도
의 등불이 되어 왔으므로 그 공적을
높이 기려 표창합니다

1993년 5월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영



成均館 第 2011-010號

表 彰 狀

全羅南道 順天支部
會長 卞 貞 承

위 사람은 成均館儒道會 全羅南道 順天支部 會長으로
在任하는 동안 敦篤한 慕聖과 奉任精神으로 儒林團結
에 獻身하였습니다. 特히 道本部 및 支部 運營 活性化에
率先垂範하여 傳統文化 宣揚과 斯文振作에 寄與한 功勞
가 至大하여 他의 龜鑑이 되므로 成均館儒道會總本部에
서 主管하는 2011年度 定期總會에 즈음하여 그 功績을
褒揚하여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2562年(西紀2011年) 3月 3日

成均館儒道會總本部

會長 朴 楠



